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5호 [투계 제2493호]

주제 107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음력 4월 2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김정은만세!〉 소리 하늘땅 진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의 하늘가에 《김정은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세계적인 정치

세계 각 국가 격찬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 당의 전략적로선이라고 천명하시었다. 조선은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를 중지한다고 심포하였다. 또한 핵시험중지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폐기하는 의식에 국제기자단을 초청하였다. 지금 조선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총집중하고있다. 조선의 중동적인 조치로 북남수뇌회담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는 등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을 환영하여 백두산위인정승국제축전 스위스조직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4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소식을 커다란 기쁨과 격동속에 접한 우리는 김정은위원장께와 조선로동당,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상봉과 회담을 계기로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밝은 전망이 펼쳐졌다. 이것은 거대하고 경이적이며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다. 조선은 하나다!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조선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은위원장 만세! 본사기자

《조선의 북남수뇌분들 판문점에서 또다시 상봉》

세계 언론들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제인대통령과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신 소식을 세계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과 판문점 조선측 지역에서 상봉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대통령은 북남고위급회담을 개최하며 련이어 군사당국자회담, 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부분별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하시었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북남수뇌상봉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이 하루빨리 리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해나가

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인대통령의 로고에 사의를 표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은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문제인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상봉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문제인은 판문점 북측지역 방문을 기념하여 통일각 방문록에 글을 남기시었다.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수뇌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중국보도망, 환구망,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페르스통신, 신문 《폼소몰스카야 브라우다》, 에호 모스크비방송, 쿠바의 브렌짜라피나통신, 몽골의 몬짜메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인디안 익스프레스》, 《스레이즈멘》, 《힌두》, 《타임스 오브 인디아》, ANI통신, NDTV방송, 지 뉴스TV방송, 인터넷통신 보이스 오브 미러먼, 이란의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네팔의 신문 《고르카 익스프레스》, 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 캄보자의 신문 《크메르 타임스》, 국가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도요신보》, NHK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BBC방송,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민주광교신문 《라브니르》,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 예절트신문들인 《알 아흐람》, 《알 야움 알 싸비아》, 《알 파즈르》, 미국의 CNN방송,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우니베르살》, 《올림피아스 노파세아스》, 멜레우르TV방송, VTV방송과 민주광교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교조선친선협회, 이탈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 및 친선협회, 볼스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자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포르투갈조선친선협회, 에스파냐 바스코주체사상연구소,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광범한 세계언론들도 《조선의 북남수뇌분들 판문점에서 또다시 상봉》, 《북과 남의 령도자들 또다시 상봉》 등의 제목들로 력사적인 제4차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경축하여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국가의 고마운 손길 아래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게 준비해나가고있는 온 나라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2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가 6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 박철민 1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소년단이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으며 소년단원들이 강성조선의 기동감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소년단원들의 창창한 미래를 꽃피워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라고 하면서 모든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결사

우위하는 열렬한 소년혁명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고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창립 72돐경축학생소년들의 종합공연 《붉은 벚꽃이 날리며 300만 앞으로》가 진행되었다. 같은 날 조선소년단창립 72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에게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깃든 생일상을 차려주는 뜻깊은 축하모임이 진행되었다.

항해남도물길 2단계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공화국에서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는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 봉천군과 청단군, 룡매도간석지지구의 방대한 면적의 논과 밭에 관개용수를 자연흐름식으로 충분히 대주어 해마다 많은 알곡을 증

수하며 레성강지역의 큰물피해를 막고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기 위한 웅대한 자연개조사업이다. 황해북도의 건설자들은 앞선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5개소의 대공사공사를 기한전에 끝냈다. 자장도의 건설자들도 물길굴

확장과 콩크리트피복공사, 버력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단위를 고정하여 시간당 작업실적을 훨씬 높였다. 저수지연계건설을 맡은 평양시 건설자들은 장성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언제 전기간에 대한 배수담담공사를 결속하였다. 본사기자



집단지역적으로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 진행

【판문점 6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열망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이 1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선권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조영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립장을 확인하였으며 실천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며 6.15공동선언 발표 18돐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북남장령금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시기와 장소들이 밝혀져 있다. 공동보도문에는 이밖에 10.4선언에서 합의된 동, 서해선철도와 도로들의 련결, 현 대화문제를 토의하는 분과회의, 우리 예술단의 남측지역공연을 위한 실무회담 등의 개최날자와 장소를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하며 판문점선언리행을 추진하기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김철성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통큰 결단과 뜨거운 동포애, 확고부동한 통일 의지에 의하여 지난 4월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탄생하였다. 온 민족은 북남수뇌분들이 합의하여 내외에 발표한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인

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자주의 원칙은 판문점선언의 근본핵이라고 할수 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는데서 주인은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여 공동보조,

공동행동을 취한다면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과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사변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통일운동의 전진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공동의 번영

조선의 힘은 자강력에 있다

여러 나라 언론들 보도
은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눈부신 기적과 비약을 이룩하며 전변되어가는 주체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탄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는 속에 영국신문 《익스프레스》에는 이런 글이 게재되었다. 《조선의 수도 평양은 결코 (광교) 용도시가 아니다. 평양은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해 늘어서고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한 도시이다. 오늘날 평양의 모습은 발전과 번영, 창조를 의미하고있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은 몰라보게 변모되는 평양의 현실은 온갖 제재와 압박에도 끄떡없이 최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선의 정신력의 반영이다. 또한 조선이 얼마든지 자기 방식으로 유족한 생활을 창조할수 있으며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세계에 보여준다고 하면서 날로 강해지는 조선의 힘은 다름아닌 자강력에 있다고 전하고있다. 로씨야 이르쿠츠크주 동부세비리출판사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자강력은 자기스스로 강하게 하는 힘이다. 조선에서는 자강력이라는 말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자강력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이 조국해방전쟁후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자 하나가 바로 자력갱생의 정신이었다.」 네팔신문 《라즈다니》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자기 힘을 굳게 믿

는 인민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그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련을 이겨낸 용감한 민족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불굴의 인민이라고 찬양하였다. 도이칠란트반제연단 인터넷홈페이지는 자기를 지킬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도제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는것, 강대국의 진정한 징표는 수명의 위대성,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라는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새긴 력사의 진리이라고 강조한 글을 편집하였다. 영국신문 《프로테라리안》은 지난 수십년간 제재와 봉쇄속에서 자강력으로 전진해온 나라, 자력갱생을 자기 발전의 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은 핵위협이나 제재로 굴복시키려는것이 그야말로 오산이며 어리석은것이라고 평하였다. 타이의 《성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니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 세계적수준의 특색건축기술이 도입된 려명거리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자강력제일주의의 빛나는 결실이다.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 자체의 힘과 지혜로 경제와 문화, 국방을 발전시키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본사기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비 약 과 번 영 의 지 름 길

강력한 국가건설은 과학기술과 교육수준에 달려있다. 공화국이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강국건설을 선차적인 목표로 내세웠고, 시종일관하게 과학중시, 교육중시노선을 견지하고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과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에서 과학과 교육은 급속히 발전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되고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속도가 나라의 발전속도라고 할수 있다.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과학으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과학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을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이르도록 할것을 구상하신 그이께서는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애국충정과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하여나갈때 대하여 가르치셨다.

그이께서는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이 경제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인재를 중시하고 전인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과업을 확히 밝혀주시었다.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자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는데 있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발전에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

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연구에 머물러있던 공화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영역이 이제 세계적인 첨단과학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는 넓은 령역으로 확대되었고 우

주강국, 프로그래밍개발강국으로 되었다.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몇 나라의 독점물인 아크릴계열 감성산공정도 자체로 연구개발완성하였고 첨단기술인 량자암호통신기술도 자체로 개발하였다. 기계제작업분야에서는 새형의 화물자동차, 트랙터, 만능화면 고기배, 성능높은 전기기관차 등이 생산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단천제련소, 대동강리일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체육기재체공장, 대동강주사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생산기지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이 현대화, 정보화되고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먼거리로봇사체계가 구축되게 되었다. 콧대 대신 무연탄으로 선철을 생산하는 산소벌冶에 의한

생산공정이 완성되고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질소비료생산상화가 실현되었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어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적적성공들은 과학자들의 지혜와 열정, 애국충정의 고귀한 열매이다. 과학보다 먼저 인간을 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자들을 위하여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우대애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과학자휴양소 등 과학자들에게 둘러친 혜택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을 얼마나 중시

하고 과학자들에게 둘러치는 국가적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

인재는 나라와 민족의 첫째가는 재보이다. 예로부터 한해 일을 중량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고 10년을 계획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100년을 내다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겨주는 격언이다.

인재가 많으면 작은 나라도 강한 국력을 가지고 흥할수 있지만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광대한 령토와 풍부한 자원도 빛을 낼수 없으며 사회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교

육이 발전하여야 나라가 발전한다. 교육사업을 만민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여기시고 교육발전에 커다란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교육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다.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건설하시려는것이 그이의 구상이고 의도이다.

과학자들에 대한 두터운 믿음

오늘 공화국에는 자기의 지혜와 열정으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많다.

비옥한 토양에서 곡식이 충실히 여무는것처럼 부강 조국건설에서 인성의 아름다운 자욱을 남기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재능과 위훈은 절세위인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원천으로 되고있다.

몇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그날 과학원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면서는 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망적인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함께 기초 과학연구에 상당한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고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

과학으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 집이라고 하시었다. 그리면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비상한 두뇌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믿고 내세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 102(2013)년 8월 어느날 과학기술현람관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제품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차대 문제라고 하시었다. 그리시기는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비상하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고 하시었다. 믿음과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하시었다.

과학자들은 자력자강의 고향 집이라고 하시었다. 그리면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의 비상한 두뇌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믿고 내세워주시며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 102(2013)년 8월 어느날 과학기술현람관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새로 개발한 첨단기술제품을 보시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차대 문제라고 하시었다. 그리시기는 조선사람들은 머리가 총명하고 비상하기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수 있다고 하시었다. 믿음과 사랑에는 보답이 따른다고 하시었다.

밀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라

학생들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쟁쟁한 역군들이 배출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라는 애국적열정과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한 길에서

달라진 거리 이름

주제 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과학자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는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런데 그후 그이께서는 새 거리의 이름을 위성과학자주력지구로 다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해 10월 완공된 거리를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과학자거리가 과학도시로

밀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라

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위성과학자거리로 위성과학자주력지구라고 명명해주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거리의 형태를 갖추자면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주력지구를 더 형성하여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위성과학자거리로 부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대 가서 위성과학자거리로 다시 이름을 바꾸자고 하시었다.

과학자들을 위한 일에는 만족을 모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기술인재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쏟으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연구사업과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절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것과 함께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가과학원과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서 나서는 대책문제들을 다시금 의논하시었다.

주제 101(2012)년 6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함께 교육문제와 관련한 담화를 나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교원들의 자질과 역할문제를 화제에 달으셨다.

그이께서는 교원들이 후대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육은 조국과 혁명의 미래를 가꾸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교원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참다운

학생들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쟁쟁한 역군들이 배출되게 된다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나라의 교직원들은 교육사업의 담당자, 새 세기 교육혁명의 주인공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라는 애국적열정과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본사기자

《조선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쏟으면서 강대한 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은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위황찬란하게 변모된 조선의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

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문부처장관 위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 조선이 거둔 성과들은 모두 국내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한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의 사회주의 교육체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로세야의 테워-로스트롭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고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

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 문명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공고대학 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

가운데서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 문명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공고대학 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



과학으로 조국을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과학기술전당에서—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언제인가 한 문인은 지도상에 위치한 일본을 보면 근화발처럼 생긴 조선의 발걸에 채워 대양 한가운데 휘부러진 4개의 섬조각들을 련상케 한다고 지적학적으로 사를 한바 있다.

일본은 조선반도정세흐름의 세한 격랑에 떠밀려 날로 깊숙이 빠져드는 불안과 소외의 심연속에서 어떻게 하나 생존의 사다리를 잡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버둥대는 현 일본의 처지를 보느라면 우의 말이 스스로 떠오르게 된다.

일본의 재빠른 표정변화에 혀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한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동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한편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주도적이며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의 결과》라는 궤변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련일 촉구하고있다.

평화와 안정을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되돌려세워 보려고 마치 불관우의 개미 떼마냥 안달부달해대며 부질없는 짓거리에 몰념하고있는 현실을 자기 눈, 자기 머리 로 보고 사유하는 능력을 상실한채 상진의 눈치를 살피며며 늘가의 갈대처럼 처신하는 일

본을 보면 《정치난쟁이》라는 불미스러운 명칭을 과연 언제 매바리겠는지 막연하기만 할뿐이다.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과거 구태의 수렁속에 빠져 조미반도의 현실, 달라진 세상을 보지 못하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달던 조선반도의 랭기류는 화해와 평화의 훈향에 밀려나고있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명성있게 진행된 북핵실험장폐기의 전과정만 놓고보더라도 인류의 공동된 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실험을 전면중지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드림같은 립장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구태여 긴 설명이 해설이 필요없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명성있게 진행된 북핵실험장폐기의 전과정만 놓고보더라도 인류의 공동된 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실험을 전면중지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드림같은 립장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구태여 긴 설명이 해설이 필요없다.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언하건대 북핵실험장폐기의식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제스츄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그저서 조미대화가 화제에 오른 첫 시기부터 아베일당인 오민가진경을 끈듯세우고 조선반도에서 저들이 바라지 않는 변화가 일어날가봐 안철부철하고있는 것이다.

달라진 현실, 변화된 흐름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제 몸상에 사로잡혀있는 일본이 세인의 조소와 경멸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악한 야마도족속들이 바늘기만 한 틈새로 세상을 보며 참세의 허바닥을 질세없이 눌러대며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무진 에를 써야 더 큰 그림과 배척밖에 차려질것이 없다.

일본이 화성이나 목성이 아닌 이 지구상에 제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다면 모든것을 적대와 대결의 자대로 대하는 못된 악습부터 버려야 한다.

이제라도 남의 일에 쫓겨나게 이를 들이밀기 전에 자기들이 무엇을 모르고있는가를 맹철하게 투시해보고 죄악으로 얼룩진 저들의 더러운 진패를 씻어 버리기 위한 용단부터 내려야 할것이다.

현명한자는 제때에 살길을 찾는 법이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어느 한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애드존 압박공조를 구결하던 도중 워싱턴에서 조미대화를 취소하였다 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소리를 전해듣자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제격 《존중하고 지지한다.》, 《원래부터 북미정상회담을 할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환호를 울리었다.

더욱 하수는 그다음이다. 미국이 하루시간도 채 안되어 조미수회담개최일정은 변함없다고 다시 언급하자 아베는 금시돌변하여 《적극 환영한다.》, 《누구보다 희망적인 강령히 기대한다.》고 박수를 쳐대었던 것이다.

수시로 변한다는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변덕이다.

일본의 재빠른 표정변화에 혀를 차기에 앞서 얼마나 가공한 처지에 빠졌으며 저러라 하는 쓸쓸한 생각이 먼저 든다.

실지로 지금 조미관계의 긴박한 움직임에 불안에 휩싸인 아베는 전황동에 매달려 백악관에 《그 어느때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요사를 떨어대고도 안심치 않아 워싱턴에 날아갈 일정을 발표하고 그 차비를 서두르고있다.

한편으로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주도적이며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와 압박의 결과》라는 궤변을 잔뜩 늘어놓으면서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련일 촉구하고있다.

평화와 안정을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되돌려세워 보려고 마치 불관우의 개미 떼마냥 안달부달해대며 부질없는 짓거리에 몰념하고있는 현실을 자기 눈, 자기 머리 로 보고 사유하는 능력을 상실한채 상진의 눈치를 살피며며 늘가의 갈대처럼 처신하는 일

본을 보면 《정치난쟁이》라는 불미스러운 명칭을 과연 언제 매바리겠는지 막연하기만 할뿐이다.

일본은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과거 구태의 수렁속에 빠져 조미반도의 현실, 달라진 세상을 보지 못하고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치달던 조선반도의 랭기류는 화해와 평화의 훈향에 밀려나고있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명성있게 진행된 북핵실험장폐기의 전과정만 놓고보더라도 인류의 공동된 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실험을 전면중지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드림같은 립장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구태여 긴 설명이 해설이 필요없다.

이번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투명성있게 진행된 북핵실험장폐기의 전과정만 놓고보더라도 인류의 공동된 념과 지향에 부합되게 핵실험을 전면중지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드림같은 립장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도 구태여 긴 설명이 해설이 필요없다.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언하건대 북핵실험장폐기의식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제스츄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행에서 처음으로 핵포해를 당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파고드는것이 옳을것이다.

일본이 떠드는 《람치자문제》라는것은 싸구려시대의 형질만큼이나 너절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일토당토 않게 떠들기 전에 과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언하건대 북핵실험장폐기의식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제스츄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행에서 처음으로 핵포해를 당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파고드는것이 옳을것이다.

일본이 떠드는 《람치자문제》라는것은 싸구려시대의 형질만큼이나 너절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일토당토 않게 떠들기 전에 과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언하건대 북핵실험장폐기의식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제스츄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행에서 처음으로 핵포해를 당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파고드는것이 옳을것이다.

일본이 떠드는 《람치자문제》라는것은 싸구려시대의 형질만큼이나 너절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일토당토 않게 떠들기 전에 과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

일본의 눈에는 우리의 이러한 선의의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언하건대 북핵실험장폐기의식에 일본만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것은 《정치적제스츄어》라는 잡소리만 치는 얼간이들을 구태여 찾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핵무기없는 세계를 바라다면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입에 올리기 전에 적어도 조선반도핵문제가 어떻게 산생되었는가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이 행에서 처음으로 핵포해를 당한 나라라는 시점에서 파고드는것이 옳을것이다.

일본이 떠드는 《람치자문제》라는것은 싸구려시대의 형질만큼이나 너절하고 어이없는 것이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일토당토 않게 떠들기 전에 과거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참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

6월에 세계진력사의 교훈

남조선력사의 갈피에는 《6.29특별선언》이 기록되어 있다. 남조선정권에서 일명 《속이구선언》으로 불리워온 선언이다.

6월일민항쟁의 소중한 열매라고 해야 할 《6.29특별선언》이 왜 《속이구선언》이 되었는가.

1987년 6월 10일 남조선의 수십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로 군사독재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전두환파소도당을 반대하여 항쟁에 열기해나섰다. 그로부터 20일 동안이나 남조선인민들은 도처에서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미제축출》 등의 구호를 들고 집회, 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을 벌리었다. 결국 군사파소도당은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팔자로 하는 《6.29특별선언》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6월일민항쟁의 소

중한 열매는 음모적방법으로 《정권》을 관할한 로태우군사파소도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말았다.

력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파소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가 지 않는다면 피로써 정취한 민주주의 성과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6월에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또 하나의 사건도 있다.

2002년 6월 13일, 이날 남조선에서 신호순, 심미선 두녀중학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던 것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빛어낸 비극적참상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은 두녀중학생살인사건의 진상규명과 범피자처벌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조물투쟁을 벌렸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에도 범피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있다.

최근의 력사는 계속 반복되고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계속되고있고 친미사대와 파소독재에 명줄을 건 사악한 무리들의 전횡도 계속되고있다. 오래전대 대장되었어야 할 전두환, 로태우역도와 군사파소도당의 후예인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 아직도 버리를 쳐두고 살판치고있는 것은 6월일민항쟁용사들에 대한 모독이며 민심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나어난 너학생들을 무한계도로 무참히 짓밟아죽이고도 사뭇게 하나 재질권을 실현해

지도 남조선에서 주인공행세를 하며 살인, 강간, 강탈 등 각종 범죄를 수없이 저지르고있다.

지금 초불항쟁으로 박근혜 보수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남조선인민들이 광범한 보수적페정산투쟁을 벌리고있지만 이미 적폐세력으로 민심의 락인을 받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발악 또한 심상치 않다.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압적존재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어떻게 하나 재질권을 실현해

과거의 파소암흑시대를 되살리려고 발광하고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 일떠선 인민대중의 힘은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6월일민항쟁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반미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대역적무리들, 파소독재세력들을 쫓아 버리려는 인민들의 투쟁열기로 6월의 대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연옥

수 없는 비핵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췌쳐대면서 끝끝내 파탄시켰다. 그런가 하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있는 북남, 조미접촉들에 대해서도 《문제인정권은 북핵도 량방제통일하면 우리것이라는 환상이 컸어 있다.》, 《미북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현정세흐름을 가로막아보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더우기 참수 없는것은 흥준표패거리들이 《관문점선언지지결의안》이 아니라 북핵폐기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췌쳐댄것이다.

남조선당국과 여야당들이 《국회》에서 관문점선언지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것은 이번 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그런데 같은 민족이기는 고사하고 애당초 인간이기를 그만둔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패거리들만이 력사적인 관문점선언을 악랄하게 현판어대면서 북남사이에서 마련된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에 계속 도전해나서고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남조선정치권이 합의하였던 《국회》에서의 관문점선언지지결의안채택을 《결의안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들이킬

지기를 바라는 고의적인 궤방》이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것들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있다.

현실은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이야말로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조금도 다름없는 천하역적무리이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의 극악한 원수이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역적무리들을 살려둔다면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북남관계가 진통과 좌절을 겪은 쓰라린 과거가 또다시 재현될수 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10년간이나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범피만으로도 이미 이 땅에서 살아 숨릴 자격을 상실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누구든 민족의 근근리익을 외면하고 동족대결에 매달린다면 준엄한 철통을 먼저 싣게 된다.는것을 박근혜탄핵과 보수 《정권》과범이 잘 말해주고있다.

이제 북남관계개선은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패당이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할수록 력사의 흐름이 무리로서의 비참한 종말만을 더욱 앞당기게 될뿐이다.

김길순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대법원장이었던 량승래의 사법행정권 탐용행위가 드러나 각계의 비난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아당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게 판결을 일삼았다니 누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투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것을 촉구하였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량승래가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범죄행위》, 《법원판결을 정치적용정이나 거래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도 끊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 패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도 끊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 패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도 끊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 패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알려진데 의하면 전 대법원장이었던 량승래는 제인시절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의 사건관계를 보수적패당과 결탁하여 《거래》, 《홍정》하면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조작적리하고 일부 판사들에 대한 인사청대상명부》를 작성하는 등 엄청난 반인민적범죄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시기 보수집권세력이 사법부를 《정권》의 시시로, 보수 《정권》유지의 《별동대》로 색막어온 또 하나의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행위이다.

법이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사법부가 독재 권력의 도구로 리용되어 온것이다.

폭로된 전 대법원장 량승래의 사법행정권탐용행위는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 홍백을 보여준 정의를 무참히 짓밟아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 수많은 유명무명의 재판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버티게 되었는가를 잘 설명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지난 보수집권시기에 벌어진 사법행정권탐용행위의 추악한 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각계층의 분노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여당

과 야당들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법농단》,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법부》, 《청와대 비위와 구미에 맞게 판결을 일삼았다니 누가 막힌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투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것을 촉구하였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량승래가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범죄행위》, 《법원판결을 정치적용정이나 거래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등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지난 보수집권시기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마구 짓밟히고 통분함에 목숨까지도 끊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 있다.

참으로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보수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 한번 그대로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보수적 패이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드러나는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의 추악한 범죄행위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가장 부패한 무리, 철저히 청산해버려야 할 쓰레기집단이라는것을 심각히 깨닫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국민의 진정어린 평화호소력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헐뜯으며 동족대결의 랭기를 다시 불어오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안보》라평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리 돌이치는 주린 개마냥 각 지역들을 싸다리며 《주사파》가 장악한 현 당국에 의해 《안보》가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정권심판》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피대를 들군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국은 《안보》소동을 다시 피우고있는 보수패당에 대해 남남민심은 맹태를 보내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풍풍 열어놓았던 대결의 도둑놈들이 평화의 분위기가 도배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환영하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

국민의 진정어린 평화호소력에 대해 《위장평화쇼》라고 헐뜯으며 동족대결의 랭기를 다시 불어오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안보》라평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리 돌이치는 주린 개마냥 각 지역들을 싸다리며 《주사파》가 장악한 현 당국에 의해 《안보》가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정권심판》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피대를 들군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국은 《안보》소동을 다시 피우고있는 보수패당에 대해 남남민심은 맹태를 보내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풍풍 열어놓았던 대결의 도둑놈들이 평화의 분위기가 도배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환영하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

같은 다 궤진 북풍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세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페 세력뿐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진풍경은 비단 《안보》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흥준표계와 비흥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흥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흥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흥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같은 다 궤진 북풍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세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페 세력뿐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진풍경은 비단 《안보》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흥준표계와 비흥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흥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흥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흥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같은 다 궤진 북풍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세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페 세력뿐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진풍경은 비단 《안보》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흥준표계와 비흥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흥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흥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흥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진풍경

남조선에서 어느때도 그러하지 만 특히 선거철만 되면 보수세력들 중에 동족대결의 랭기를 다시 불어오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광경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안보》라평이 그 하나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가 하루리 돌이치는 주린 개마냥 각 지역들을 싸다리며 《주사파》가 장악한 현 당국에 의해 《안보》가 심히 파괴되고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정권심판》으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피대를 들군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국은 《안보》소동을 다시 피우고있는 보수패당에 대해 남남민심은 맹태를 보내고 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선반도에는 장장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풍풍 열어놓았던 대결의 도둑놈들이 평화의 분위기가 도배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분위기를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가 환영하며 그것을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

같은 다 궤진 북풍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세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페 세력뿐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진풍경은 비단 《안보》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흥준표계와 비흥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흥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흥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흥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같은 다 궤진 북풍을 두드러대며 지지표를 구걸해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진재위협세력은 전쟁과 대결만을 불리오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적페 세력뿐이다.》는 민심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선거철을 계기로 보수세력들에 의해 벌어지는 진풍경은 비단 《안보》타령놀음만이 아니다.

서로 더 많은 먹이를 삼키겠다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개들처럼 조금이라도 권력을 더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물고뜯는 보수세력들사이의 개싸움질 역시 이번 선거철에서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당권을 쥐고 안하무인격으로 늘어대는 흥준표계와 비흥준표계간의 싸움이 그칠새 없다. 얼마전에도 비흥준표계가 《끝없이 침체일로를 견고있는 당지지를 선거전략부재의 책임》문제를 두고 흥준표의 당대표사퇴를 요구하자 흥준표는 그것을 개소리로 치부하며 싸움질을 벌려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사대와 동족대결,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시대와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세력들이 심판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박철우

단평 개법에 도토리신세

지난 3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대표 흥준표가 자기 당후보자들에게 대한 선거지원유세를 중 5월 31일 31일부터 총청남도, 부간검점회의》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평가그대로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흥준표가 선거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한 6월 3일은 남조선에서 5월 31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운동후 처음으로 맛는 첫 일요일이다. 그런것만큼 어느때도 아닌 이날 선거운동에 한창 열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그것도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흥준표가 선거지원유세를 중지하는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당의 대표들과 지도부성원들이 자기 당의 후보자들을 내세우며 선거지원유세를 하고있는 현상과 180°로 다른 흥준표의 행태를 두고 각계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불고있는 《흥준표대성(파들림)》이 그 원인이라고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내에서는 《흥준표대성》이 바로 골격으로 벌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남조선과 조선반도평화분위기를 전장분위기로 오도하는 거짓선동만을 일삼아온 흥준표의 지역방

문에 손사래를 치며 《흥준표대성》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다. 흥준표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 5월 31일부터 총청남도, 부간검점회의》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평가그대로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흥준표가 선거지원유세를 중단하기로 한 6월 3일은 남조선에서 5월 31일부터 시작된 공식선거운동후 처음으로 맛는 첫 일요일이다. 그런것만큼 어느때도 아닌 이날 선거운동에 한창 열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그것도 당대표와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흥준표가 선거지원유세를 중지하는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당의 대표들과 지도부성원들이 자기 당의 후보자들을 내세우며 선거지원유세를 하고있는 현상과 180°로 다른 흥준표의 행태를 두고 각계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불고있는 《흥준표대성(파들림)》이 그 원인이라고 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내에서는 《흥준표대성》이 바로 골격으로 벌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많은 후보들이 남조선과 조선반도평화분위기를 전장분위기로 오도하는 거짓선동만을 일삼아온 흥준표의 지역방

인기를 끄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



인삼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무병장수하게 하는 보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이라는 데서 지어진 이름인데 산에서 자라는 것을 산삼이라고 하며 재배하는 것을 인삼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인삼은 강장, 면역기능향진, 조절기능강화,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기능강화 등의 작용을 하며 단백질과 지방산의 생합성을 촉진시키고 혈당량을 낮추며 열물분비를 촉진시키는 등 물질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하여 옛날부터 특효약재로 이용되어왔다.

우리 나라에서 인삼재배의 역사는 매우 오래된 특이 풍토와 기후 등 자연지리적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여온 것으로 하여 《고려개성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한다. 평양의 보통강반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은 이처럼 이름난 개성인삼을 가지고 만든 갖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전시장에는 개성고려홍삼가루, 개성고려인삼생강차, 개성고려인삼마차, 개성고려인삼커피, 개성고려인삼술, 개성고려인삼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 봉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저지 않은 제품들이 이미 국내는 물론 여러 국제 상품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전시장에는 여러가지 특색 있는 음식들을 봉사하는 식당도 있다.

주로 인삼담과삼계탕, 인삼백김치, 인삼탕알고기찜, 인삼차 등 인삼을 리용하여 만든 갖가지 요리들과 음료들을 봉사하고 있는 데 그 맛이 독특하고 약효가 뛰어나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인삼담과삼계탕은 담과 개성땅에서 기른 닭으로, 개성의 이름난 요리사에 가서 전수받은 기술로 만드는 것으로 하여 그 맛과 효능이 아주 유명하다.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이 문을 연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곳으로는 많은 평양시민들과 해외동포들이 찾고 있다.

지금 개성고려인삼전시장의 봉사자들은 더 많은 고

역사(文)화(유)적 의주의 통군정

외적과의 싸움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였다고 하여 의주라고 불리우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의주읍에는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린 력사유적들이 많다.

그중에는 건물의 구조와 형식이 장쾌하면서도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전해져 온 통군정도 있다.

고려전반기에 처음 세워진 통군정은 의주성의 북쪽장대로 세워진 무정이다. 통군정은 의주성에서 제일 높은 북쪽 삼각산봉우리에 위치하여 그간의 압록강과 근방일대를 내다보며 군사지휘를 하기 좋게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중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지금의 통군정은 1478년에 개건한 것이며 그후 1538년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보수하였다.

보통 무정은 정면의 간수보다 측면의 간수를 적게 하고 정면의 간수를 홀수로 하는데 통군정에서는 정면과 측면의 간수를 다같이 짝수인 4칸으로 한 것이 특이하다. 정면 4칸(14. 41m), 측면 4칸(11. 85m)으로 짜고 한간너비와 무정의 복판에 T형평면으로 마루를 깔았다. 무정에는 홀림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꽃가지형제공을 갖춘 2의공식두공을 얹었다. 화반의 형식은 꽃무늬로 하였으며 측면은 넓게 하면서 7도리집으로 하고 집안은 동천정으로 시원하게 띄어놓으면서 대들보를 겹으로 놓았다. 대들보우에 동자두공을 놓고 중보우에 화반대공을 놓는 등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붕은 박공붕이 넓은 겹처마의 합각지붕으로 하여 건물의 웅장성을 돋구었으며 건물전반에 모루단청을 입혀 그 품위를 높였다.

통군정은 우리 민족의 무정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호평받는 기능성화장품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호는 참으로 다양하다. 어떤 여성들은 화장품이라 할 때 무엇보다도 보습성이 좋아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여성들은 자기의 얼굴을 갖난 나이의 피부처럼 맑고 부드럽게 해줄 화장품을 찾는다. 그런가 하면 일부 여성들속에서는 검버섯이나 주근깨, 주름같은것을 없애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최근년간 공화국의 합원기술교류소에서 화장품에 대한 여성들의 각이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드름제거 살결물과 미백살결물, 주름제거물크림, 자외선방지분크림, 스르플러나세수비누를 연구개발하였다.

교류소에서 개발한 기능성 화장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은 대단히 좋다. 미백살결물을 사용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보습성이 좋은데다가 이상하리만큼 피부가 투명해지고 검버섯과 주근깨같은것도 점차 없어진다고 말하고있다.

합원기술교류소에서는 살결물의 미백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세계 화장품공업계에서 기록의 물질로 인정되고있는 과일산과 특차추출물, 장미추출물 등을 주원료로 하는 독특한 화장품 제조방법을 적용하였다.

미백살결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주름제거물크림도 사람들에 널리 알려진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등을 함유하고있어 오래동안 사용하면 잔주름뿐 아니라 굵은 주름까지도 제거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있다.

합원기술교류소에서는 여성들의 피부가 자외선



조식식탐 건축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하고 전통적인 담건축에 관한 건축술의 총체로서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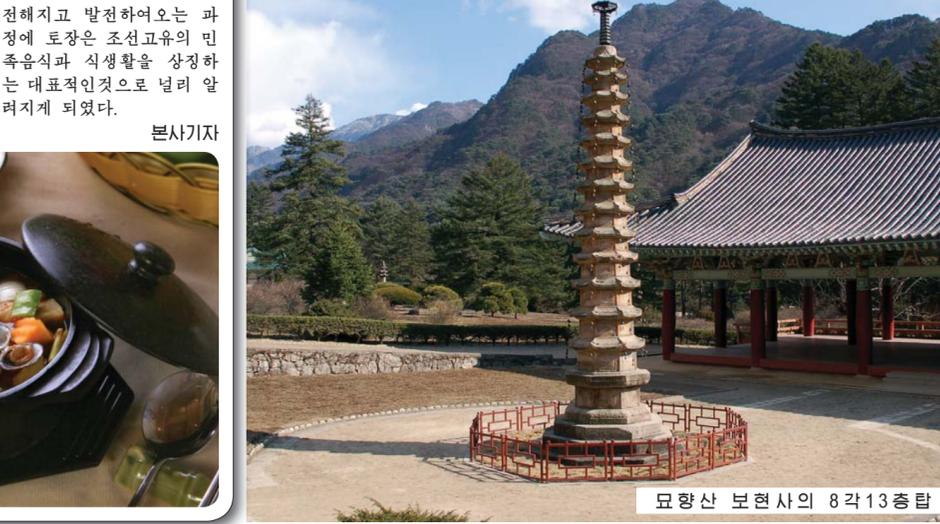
조식의 옛담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무와 돌 등 건축재료에 따라 나무담, 돌담 등으로

의 나무담위주의 담건축술은 오늘 현대적미감에 맞게 계승되고있는데 담기단과 담뿔, 담뿔리로 구성된 담의 구성수법은 현대의 거의 모든 담들에 그대로 적용되고있으며 옛담건축의 비례수법도 현대담건축에 도입되고있다.

본사기자

조식식탐건축술



묘향산 보현사의 8각13층탑

단편소설 가족 사진 (2)

글 김승기, 그림 리성일

광천리는 립산지구인 성흥로동자구와 한마장거리로 이웃해있다. 사진을 찍으러면 거기에 있는 사진관에 찾아가도 된다. 그런데 부디 20리가 넘는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영만은 이러한 속궁냥을 읽은 채 손님이 또 이야기의 발을 들었다.

《이왕이면 우리 어머니 80쪽 생일사진을 좀더 잘 찍어드리고싶어서...》

영만은 약간은 멧적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청찬》이 정 싫지는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꼭 자기에게 사진을 찍고싶다는 말이었다.

...영만은 유능한 사진사였다. 벌써 30년 가까이 사진사로 근무하는 오랜 사진사 일꾼만이라 사진사라도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사진가 동맹의 어엿한 맹원이다. 그가 이렇게 사진사동맹의 맹원으로 되게 된데는 그의 사진예술에 대한 깊은 조예가 적지 않은 을 냈다. 남다른 예술적관상과 예리한 구도감각, 여러가지 빛에 대한 능숙한 활용능력을 갖춘데다가 사진현상기술키까지 높아 그는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된 사진전람회에 여러번 좋은 작품을 내놓아 당선된 경향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니 이

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진을 찍을바에는 좀더 유능한 사진사에게 찍으려는 《유심》이 작용했으리라...

그러나 영만에게는 좀 딱한 사정이 있었다. 글썽 읍지구의 사람이라면 할수없이 자기가 꼭 찍어야했지만 성흥로동자구사진사에 부탁을 해도 될 일인데 자기 부디 20리길을 걸어가 꼭 사진을 찍어주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았다. 더구나 자기는 매일 읍청동농장에 다니 나가려고 계획하고있는 데...

그리하여 영만은 그의 눈길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그래도 성흥로동자구에 갈걸 그랬습니다. 80쪽 생일 사진이야 누가 소홀히 찍겠습니까?》

반거절의 의미가 비긴 이 말에 젊은 손님은 멘겁을 하듯 놀랐다. 마치도 사진이 영 망가진다는 우러라도 든 듯 급히 앞으로 다가가 영만의 손까지 덥석 잡았다.

《사진사동지, 저의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드려도 그저 평범히 찍어드리고싶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 또다시 간절한 소원의 빛이 어려웠다.

영만은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군. 이런 효자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랴! 영만은 선선히 약속을 했다.

《매일 점심녘에 도착하면 되겠지요?》

영만이 이렇게 말하니 젊은 손님은 날듯이 기뻐했다. 《그러므로. 광천리 3번에 와서 저를 찾으면 됩니다. 김명후라고...》

자기 이름이 《김명후》라고 소개한 그는 광천리 3번에 와서 큰 추리나무가 세그루 있는 집을 찾으면 된다고 자초지종 길까지 설명해주었다. ...

영만은 그래서 바로 이 집에 왔다. 어머니를 위하는 아들의 그 마음이 사진으로 활짝 피어나게 하려고 매일 아침 하려던 사진제작업까지 밤도와 해제끼고 읍청장을 거쳐 여기로 온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집의 광경이란 참...

글썽 잔치집이야 흥성거리 나뉠것이고 없고 인물대사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뒀 할것이 못된다. 그러나 그것도 웬간해야지 지금 이 집처럼 요란해진다면 사회주의사회의 새로운 풍속파는 너무도 거리가 먼것이였다. 청해들인 손님이 집이 러져나

가도록 맑고 음식도 제 집에서는 미처 다 마련하지 못하겠는지 이 집, 저 집에 시키어 달라들이는 모양이다.

몸매 가느다란 어떤 녀인은 절편을 한소꿉이 가득 담은 접시도 오는가 하면 또 어떤 녀인은 분명 음식이 들어있을것만 같은 안고 뚝뚝한 몸을 흔들면서 《아유, 내가 늦지 않았나?》 하고 딸까지 뺨뺨 흘리며 부엌에 들어선다.

이건 해도 너무했다. 《엇참, 일단 보고는 나무를 못 그린더러...》

영만은 어제 비비리는 20리 길을 몸이 흠뻑 젖어 찾아왔던 이 집주인을 어머니미안한 기색으로 내가던 명후가 그게 무슨 말인가 되물음을 했으나 영만은 급히 입을 닫아버리고말았다. 지금은 그걸 말할 분위기도 못되니 좀 있다 틈을 보아 말을 좀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자, 사진이나 찍읍시다.》

영만은 제 먼저 사진기를 들고 일어났다. 어쨌든 대사는 치르고 봐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사진이 그다 잘되는 것 같지 않았다. 사진은 곧 예술이라 사진을 찍는 사진사의 마음이 흥그러워야 잘되는 법이다. 그런데 사진 찍는이의 마음이 그렇듯

《자, 원앙처럼 다정히 사진을 찍읍시다. 신랑, 신부 고개를 가운데로 가운데로 주십시오. 원앙부리를 맞대듯이...》 하고 모양새를 바로잡아가며 사진을 찍어주었다. 아기가 투정질을 하는 돌사진을 찍을 때는 《애기 이녀석, 돌사진을 우는걸 그냥 찍어줄라.》 하고 얼리면서 5분이고 10분이고 기다려 봐게 웃는 사진을 찍어주곤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그다개 개운치 않으니 덕담 한마디 던질줄 모르고 그저 묵묵히 사진기 사타만 놀러뒀다. 스스로도 내가 이래저 말아야겠는데 하고 자러지 해보았지만 마음에 비해 결행동은 그저 무뎠던현상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속에 영만은 사진을 거의 다 찍은 모양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 어머니를 《할머니》, 《큰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척할미를 가릴수 없는 수많은 사진을 찍고나자 일순 조용해졌다.

《자, 이젠 사진을 찍을 사람이 더 없소?》

대사를 주관하는 중로배가 누구에게라 없이 물으니 아마 마지막사진을 찍을 사람인데 웬 초로의 사람이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고 나섰었다.

《나도 함께 찍읍시다.》

그를 바라보던 영만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사람은 이곳 광천리 리당위원장 아닌가? 그런데 리당위원장도 여기 와있었나?

15세기종영 도화서(조선본권왕조시기 화가들이 배속되어있던 관청)에서 읽은 이야기이다.

이 시기 강희안, 리상좌와 함께 3대화가로 유명했던 안견의 방에서는 어느날 많은 화가들이 아침부터 모여와 한낮이 지나도록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었다.

그들이 펼쳐놓은 화제의 중심은 앞에 놓인 한 네들이 그림을 아끼지 않듯이 이 그림은 채색도 구도도 잘된 명화인것만은 사실일세.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주 사소한점에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네. 흔히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 뒤로 찌를 때 목뒤에는 반드시 주름살이 생기기 마련이네. 현대 이 그림에는 그게 없구만. 이걸 참으로 큰 실수가 아닐수 없네.》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아니나다를까 주인공의 뒤로 찌를 목뒤에는 주름살이 없었다.

《과시 명화가의 눈이 다르긴 달라. 명화가의 평가에 의해 이 그림은 명화이기 그만이겠네.》

목뒤에 생기는 단 하나의 주름살세부형상을 소홀히 한 탓에 대대로 내려오며 보물로 여기던 명화는 한순간에 보잘것 없는 졸작으로 되고 말았다.

본사기자